

10. 도 고 면

[86] 거 문 바 위

옛날에 도고면 향산리라는 곳에 거문바위가 있다. 이 바위에 전하는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옛날 옛날에 거문 바위터에 큰 부자가 살았다 한다. 그 집은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오고 하여 그 집의 며느리의 손은 물기가 마를날이 없이 치닥거리를 하였다 한다. 그런 중 어느날 스님이 그 집에 들렀을 때 며느리가 물기를 스님 어떻게 하면 제가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니 스님이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이곳으로부터 산길을 뚫어 석당리로 길을 내시오 하는 말을 들은 며느리는 그 길을 뚫었다 한다.

그런데 그 길이 완성될 무렵에 그 집은 망해 버렸다 한다. 그리고 그 집은 커다란 검은 바위로 변해 버렸다 한다. 지금 이 마을은 검은 바위가 변하여 거문래(검은 배: 흑암(黑岩))라 부르고 있다. 이집 며느리가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집에 찾아 오는 손님을 정성스럽게 모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하면서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여기에도 해당하는 말이 아닐는지?

[87] 고 씨 마을

아산군 도고면 시전리(갈리)에 고씨들이 사는 고씨 마을이 있었다. 그들은 5대째 그곳에서 살아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임금이 그곳을 미행하던 길에 그 마을에 들려 물기를 이곳의 자랑거리를 한번 말해보라 하니 고씨의 말이 비록 가난하게 살아 내세울 것은 없지만 한가지 보여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무엇인가 물으니 잠깐 저리로 가십시오 했다. 거기에는 향아리가 5개 있었는데 그 안에는 참을 인(忍)자가 가득 들어 있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니 저희들은 비록 가난하게 살고 있기는 하지만 형제간에 어떤일이 있더라도 참아가면서 우애있게 지내고 있다는 했다. 그리하여 임금은 그들을 칭찬하고 나중에 후한 상을 내려 더욱더 우애있고 부모님을 잘 모셔가며 행복하게 살았다 한다. 부모 형제간에도 변덕스럽기 한없는 세태인,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이 있다.

[88] 구 암 바 위

도고면 오망리 오리실 북쪽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아홉명의 형제를 둔 농부가 살고 있었다. 아홉명의 형제는 우애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착한 아들들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농부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새 어머니를 맞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새로 맞은 어머니를 아홉형제들은 지성으로 모셨으나 사실 그 새어머니는 재산이 탐이 나서 들어온 나쁜 여자였다. 그래서 그 여자는 모든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홉씩이나 되는 형제가 문제였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아홉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다보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고을 점장이와 계락을 꾸미게 되었다. 자기가 점을 쳐 보았는제 집안에 액운이 끼었다는 것이다. 그 액운이란 아홉씩이나 되는 아들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애들을 빨리 내쫓지 않으면 이 집에 불길한 일이 있을 것이라 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그 농부는 집에 귀신이 나타나고 막내가 병이 드는 등 예사롭지 못한 일이 자꾸 벌어지자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새 부인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무런 의지도 없는 아들들을 하루 아침에 거지가 되어 밤이슬을 맞으며 지내야 했다.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을 내쫓은 것이 새어머니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면서 원망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내쫓기는 하였으나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며 그들은 모두 죽어 없앨 방법을 생각하였다. 그 방법이란 그 점장의 점술로 고양이를 사나운 호랑이로 둔갑시켜 아홉형제를 죽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호랑이로 둔갑한 고양이는 숲속에서 잠에 떨어져 있는 아홉 형제를 차례로 물어 죽였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 농부는 당장 그 자리에서 새 아내의 목을 내려

치고 아들들이 있었던 곳으로 가 보았더니 그곳에는 아들 대신 아홉 개의 바위가 서 있었는데 그 모양이 거북이와 같이 생겼으며 집쪽으로 휘어 있었다.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으면 그리고 순식간에 죽음을 당한 사실이 얼마나 원통했으면 그 바위로 변했을가 하는 생각에 그 농부는 자신의 미련함으로 아홉이나 되는 아들들을 모두 죽게한 것이 몹시도 원망스러워 미쳐 버리고 말았다.

[89] 농구렁이 바위

어떤 소녀가 나물을 캐다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길을 잃은 소녀는 울면서 산을 헤매다가 어떤 산적 무리들을 만나게 되었다. 소녀를 붙잡으려면 산적들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소녀에게로 다가가지 못하고 뒷걸음쳐 도망갔다. 사냥하러 왔다가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된 도령은 너무 이상하여 그 소녀에게로 다가갔다. 소녀는 무엇인가 두려움에 차 있었다. 그 소녀는 울고 있었다. 구슬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도령은 그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왜 그러시오. 무슨 곡절이 있는 듯한데요? 그러나 대답이 없다. 소녀는 쓰러져 있었다. 도령은 하는 수 없이 소녀를 메고 산을 내려왔다. 소녀는 죽은 듯한데 가느다란 맥박이 뛰고 있었다. 총각은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굳어져 온갖 정성을 다 드렸다. 그 날은 날이 어두워 내일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총각은 혼자였다. 오두막 집을 하나 가지고 사냥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 다음날로부터 총각은 어떤 노인이 나타나 "저 바위에다 5일동안 물 한모금 마시지 않고 빌어보시오" 하는 말에 총각은 열심히 바위에다 노구매를 저어놓고 다섯동안 빌었다. 총각도 기진맥진 한번은 포기하려고도 했었다.

그러나 그 처녀의 얼굴을 보면 너무도 아름답고 돕고 싶은 마음이 솟아 올랐다. 5일동안 빌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무엇인가 철썩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별떡 깨어보니 농구렁이가 바위에 죽어 있었다. 총각은 하도 신기해서 하늘이 도와주신 것이구나 하면서 농구렁이를 가지고 처녀가 있는 집으로 와서 약을 만들어 처녀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힘을 못쓰던 처녀가 일어나 앉았다. 처녀는 미안한 듯이 사과의 말을 하고 사연을 하나 하나 말하기 시작했다. 그 소녀는 어느 양가집 규수였다. 그런데 집안이 그 소녀 때문에 망한다는 점장이와 계모의 말을 믿고 자식을 눈물로 내보냈다 한다. 그 규수는 하는 수 없이 나물을 캐다파는 노릇을 하면서 생애를 이어 나갔다. 모든 고난을 참으면서 그런데 그녀에게는 이상한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나쁜 사람이 다가오기만 하면 악한 사람은 힘이 쏙 빠지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다. 어떤 산적은 기절을 하고 일어나지 못했다는 말도 한다. 내용을 안 총각은 우리 같이 살자고 청했고 소녀는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은공으로 밥을 해주며 빨래도 해주겠다고 했다. 그후로 총각과 규수는 혼인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했다. 이 이야기는 도고면 금산리 양지말과 음지말 사이에 있는 바위의 전설로 구렁이가 이 바위에 떨어져 처녀를 살렸다하여 농구렁이 바위라 불리운다.

[90] 도 고 온 천

지금은 도고온천, 옆산의 모퉁이에 송충이 모양의 긴 눈이 있었는데 이 눈을 빼기배미라 불렀다. 빼기배미 눈 한구석에는 항상 조금씩 흐르는 웅달샘이 있었다 한다. 두메 산골의 외딴집에 반곰추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외롭게 사는 딸이 하나가 있었다. 아버지 병구환으로 시집도 못가고 노처녀로 지내며 집안 일을 혼자 해나가며 아버지 버을 고치려고 지금의 신승리 부근에 사는 침의를 찾아 다니길 여러해 동안 계속했다. 그만큼의 정성을 들였으면 완쾌 되었을 만한데 병은 낫지 않았다. 어느날 아버지를 모시고 침의를 찾았는데 빼기배미 웅달샘을 지나게 되었다. 학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무심코 지나서 침의의 집에 달았다. 침의는 "오는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군요." 건강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침의님" 아버지와 딸은 기쁜표정으로 돌아오다가 웅달샘을 지나다보니 학이 여태까지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상히 여긴 딸이 학에게 다가갔으나 날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학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쪽 다리에 상처가 나 있는데 그 다리를 웅달샘에 담그고 있었다. 상처가 아무는 것 같아 보였다. 집에 돌아온 딸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학이 다리를 웅달샘에 오래 담그고 있는 것은 상처를 낫게학시 위하여 담그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웅달샘에 가기로 했다. 아버지의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물을

한동이 떠다 눈을 씻기고 잡수시게 하니 쾌차하는 것 같아 여러날 하니 아버지의 눈이 밝아 지고 반갑추었던 아버지의 허리가 펴지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는 병을 고치고 딸은 시집가서 잘 살았다 한다. 온 마을에 소문이 퍼지자 각 마을의 병환자들이 모여들어 웅달샘물로 고쳤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물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전염병도 걸리지 않았다 한다.

일제시대에는 평능이라는 사람이 샘을 잘 만들어 돈을 받고 물을 팔았다 한다.

그 뒤 일본이 고목득포가 유향수를 개발 욕탕을 만들어 유향천으로 알려진 것이다.

[91] 말 무덤

아산군 도고면 시전리 3구에는 작은 무덤이 하나 전하여 내려오고 있는데 그 무덤이 말 무덤이라고 한다. 이에 전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교관 남 국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부모님께는 효성이 지극하여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내는 성격이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병정 놀이를 할 때에도 언제나 대장 노릇을 했고 놀이를 할 때면 다른 아이들은 으레 정말 대장인 것 같이 받들었다. 또한 그는 항상 무예를 닦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한참 무예를 익히고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임금은 의주로 피난을 떠나고 다른 모든 군관들도 모두 달아나는 판이니 그를 본 백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관군들이 싸움마다 패하여 갔다. 벼슬이 놓지도 못한 남국걸은 왜군이 쳐들어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드디어 왜군이 쳐들어 오고 있었다. 이를 본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싸울 기색이 없어 보였다. 이때 남국걸은 활을 쏘며 말을 타고 적진을 향해 달려 나갔다. 그러자 다른 군사들도 사기를 되찾고 적진을 향해 달려 나갔다. 그러나 적군은 이 쪽의 10배가 넘어 보였다. 그리하여 남국걸은 왜군을 전부 무찌르지 못한 한을 남기고 죽어 갔다. 남국걸은 부모님께 보름마다 집에 들려 인사를 드렸었다. 그런데 소식이 끊기자 고향에서는 궁궁히 여기고 있었다. 그러던 때 남국걸이 타고 다니던 말이 그가 싸움터에서 죽자 그의 의관을 묻고 고향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어찌나 빨리 달려 왔는지 그만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남국걸의 의관을 거두고 것처럼 주인에 대한 정성이 지극한 말을 물어주었으며 그곳이 말무덤인데 지금은 망덕 아래 약간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자기 주인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부모님께 주인의 시신을 전해 준 마음은 동물이지만 정말 충성스럽다. 지금도 그곳을 지나칠 때면 마음이 엄숙해 짐을 느낀다.

[92] 번갯산

나는 도고면 와산리에 산다. 우리 동네는 대부분의 성씨가 "오"씨다. 대대로 이어오는 살기좋은 마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대화가 안 된것도 같다. 그래서 미신을 믿는 경향도 높은 편인지도 모른다. 정월대보름이나 추석, 그리고 어떤 큰일이 있으면 우리 마을에서 제일 높은 번갯산에 제사를 지낸다. 그 산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꼭대기에는 큰 바위가 많지만 산 중턱이나 마을 주위에는 바위는 고사하고 잔돌이 조각들도 별로 없다. 마을 입구를 딱 들어서면 온산들이 병풍같이 둘러 쌓인 가운데 움푹 들어 앉은 마을 그 마을의 제일 정면 뒤로 높은 번갯산이 웅장하게 마을을 내려보고 있다. 이 산 이름이 번갯산이라고 불리우게 된 기원은 이 산에서 옛날 번개를 다스리는 신이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떨다가 마침내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 신을 달랬다.

그런데 어떤날 비의 신과 번개의 신이 싸움을 하게 되었다. 비와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데 느닷없이 천둥의 호통으로 끝이 났지만 이것을 계기로 비와 천둥과 번개는 같이 있다는 것이다. 그때 싸운 흔적으로 산꼭대기에 큰 바위들이 쌓여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믿기는 어려우나 이렇게 해서 그 산의 이름은 후에 번갯산이라고 불리어 졌다.

그런데 이 산의 마을쪽은 나무가 무성하지만 마을의 뒤쪽은 험벗은 민둥산이다. 이것도 번개 때문이었을까?

[93] 산 직 촌

도고면 금산리에 있는 산적촌의 전설이다. 나는 이 동네에 살면서 아직까지도 동네에 깃들여 있는 전설이라든가 유래등을 롤랐던 것이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이글을 쓰는 동안에는 아니 쓴 후라도 우리 동네를 사랑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김에 기쁨을 금할 수 없다. 금산리(갈리)에 있는 동쪽산 중턱에는 큰 묘가 있고 묘의 가에는 고목들과 소나무들이 무섭게 내려다 보고 있다. 아마도 옛 분의 넋을 기리기 위한 위로의 산적이 일지도 모른다. 이조시대에 한 참판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 그 자신의 묘자리를 보고 험한 길을 걷고 또 걸어 달은 곳이 이곳 금산리이다. 마침 날이 저물어 하룻밤 쉬려고 집을 구하니 집은 보이지 않고 웬 산중턱에서 불빛이 반짝거리 쉼 곳을 찾았구나 하고 단숨에 올라가 주인장을 부르니 웬 하얀 수염의 노인이 나오면서 반갑게 맞이하여 들어가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니 쌓였던 긴장이 풀리고 고픈 배를 채우니 졸음이 오기 시작하여 금방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얀 노인이 나타나 하시는 말씀이 " 잘오시었네 이제부터 이 마을을 지켜주게"하며 금방 사라졌다. 다음날 그 사람은 간밤의 꿈을 생각하며 사방을 두리번 거리니 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보니 명당자리도 보통 명당자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그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와 그 자리에 자기 아버지를 안장시켰다. 며칠뒤에 와 보니 그 부근에 웬 중년부부가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그 부부는 어찌나 금술이 좋은지 모두가 부러워 할 정도였다. 그래서 그는 마침 잘 됐다고 하면서 구 부부를 불러 청하였다. " 이보게. 내 이 마을에 살면 당연지사 아버님의 묘를 지키거늘 천리길을 걷고 또 걸어야 이 땅에 도착하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찌하나 그러니 이왕 이곳에 살것이면 우리 아버님의 묘를 지켜주게 그럼 내 자네에게 참봉(벼슬이름) 자리를 하나 드리리다"하니 그 부부는 좋아 하면서 얼른 승낙하였다. "서방님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꼭 대감마님의 묘를 지키겠습니다."하였다. 그 때부터 민가가 늘기 시작하여 마을을 이루었다. 그 참봉이 지나가기만 하여도 거마를 하지 못하였고 하마를 했으며 그 참봉을 깎듯이 대하고 예의를 지켰다. 또한 그 참봉은 그 묘를 하루에도 몇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그리하여 참봉자리를 얻은 산지기를 중심으로 하여 마을이 시작되었다고하여 산적촌이라 불리었다 한다. 그러나 항상 좋은 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 민심이 흉해지고 산적들이 들끓었다. 그래서 이곳으로 시집오는 사람은 시집오기를 꺼려했고 밖에 나가기를 꺼렸다. 어느날 아침 그 참봉이 묘를 지키는데 묘가 조금 파헤쳐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상하다 산적의 짓일까? 하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참봉은 그날밤 그 묘를 지키기로 했다. 때가 밤이니만큼 무섭고 추웠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니 산적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묘를 파헤쳐 참판과 같이 묻었던 유물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때 참봉이 나타나서 " 네 이놈들 감히 그 묘가 어떤 분의 모라고 파헤치는나?" 하며 달려 들었다. 어찌 상대가 되겠는가! "웁이라고 이놈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더니"하며 여러 산적들이 달려들어 참봉은 그만 죽고 말았다. 지금도 그 참판의 묘는 나 보라듯이 동그렇게 놓여있고 그 산지기의 넋을 기리는 나무가 우뚝 서 있다. 나는 지금 그 묘를 보면서 산지기의 책임감이라든가 인간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94] 선 바 위

도고면 외산리 오줌터에 높이 2m 가량되는 오줌자국같이 패인 자국이 있는 바위가 있다. 그 바위를 선바위라고 부르는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 어느 임금때 이웃나라에 우리나라의 특산물을 바쳐야 하는 때가 있었다. 그때 제주도에서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가던 중 날이 저물어 산속에서 하룻밤을 지새게 되었다. 그때 그 무리를 이끌던 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는 용맹하기로 이름이 나 있어 어느 누구도 그를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임금님도 그 사실을 알고 그를 시켜 험한 길에 무사히 특산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맡겨 두었던 것이다. 그는 산속에서 길을 잊는 것이 낭패라 생각하여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산속에서 하룻밤 쉬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산적의 무리가 나타나서 약탈을 하려했다. 그러나 산적의 두목인 듯한자도 이 강수의 얼굴을 봐 선뜻 달려들지도 못했다. 그러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 잘 알고 있는 터였^다. 그래서 산적 두목은 모두가 다 싸우느니 보다 그 장수와 자기가 싸워서 이기는 쪽이 물건을 차지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싸움이 시작되었다. 둘다 말을 타고 칼을 하나씩 들고서는 불꽃이 튀 정도로 치열한 승부를 겨루었다. 그러나

양쪽이 다 만만치 않은 상대라서 싸움은 새벽녘까지도 끝이 나지를 않았다. 이 바위 저 바위를 옮겨다니면서 나는 듯 재빨랐다. 그런데 그때 장수가 탄 말이 자라모양으로 생긴 바위로 오줌을 누었는데 그 줄기가 어찌나 센지 바위가 패었다. 그 두목은 이를 보고 도망갔으나 결국 달려드는 말한테 받쳐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말이 오줌을 누었다는 바위는 선바위라 이름하여 아직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95] 용 바 위

아산군 도고면 금산리에는 용바위라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아담한 바위 하나가 둥그스름한 모습으로 누워 있다. 이 마을에 용석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다. 비록 부유한 가정은 아니지만 행복하였다. 그러나 이 부부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근심 걱정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자식이 없는 걱정이었다. 남편은 부인을 안심시키느라고 격려의 말을 건네주고 하였지만 부인은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이들의 대화내용인즉 밝은 달밤에 방 안에서 마주 앉아 "여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지 않소? 당신이 아주 아기를 못 낳는 것도 아니잖소.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여보 저는 이젠 틀렸어요. 차라리 다른 여자를 택하세요. 언제든지 저는 물러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여보 왜 그러는 거요! 우리가 자식이 없다고 이 한세상 못사는 것도 아니잖소! 다시한번 용기를 내서 기다려 봅시다. "여보" 어느날 너무도 화창하고 따뜻한 봄날 산에는 산나물이 많이 돋아나 있을 때 부인이 산나물을 캐러 산으로 올라갔는데 어디쯤인가 산나무이 너무 많아 정신없이 나물을 캐다가 너무 더워서 사방을 둘러보니 나무그늘을 안고 있는 바위 하나가 놓여 있어 거기서 잠깐 쉬기 위해 앉았다. 때는 봄이니만큼 안 졸릴수가 없었다. 그만 부인이 깜박 졸다가 잠이 들어 버렸다. 꿈을 꾸었던지 꿈속에 하얀 노인이 나타나더니 천둥 번개를 일으키며 용을 불렀는데 그 용이 큰 여의주를 입에 불고 이 부인에게 떨어 뜨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부인이 깜짝 놀라 깨보니 꿈이었다. 하도 기이하고 신기하여 그길로 곧장 집으로 내려가 남편에게 사실을 고하였더니 남편이 좋아라 하며 부인을 덤석 껴안는지라 몇 달 후 꿈이 용꿈이니만큼 태기가 있어 부인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였다. 부인이 꿈꾼 뒷날 남편은 부인이 말하는 장소에 가 보았으나 바위는 보이지 않고 조그만 돌멩이만 하나 놓여 있을 뿐이었다. 이상하였다. 부인의 배가 불러오면서 그 돌은 자꾸 커졌다. 남편은 매일 같이 커지는 돌을 이상히 여겨 그 사실을 부인한테 말하였다. 부인도 이상하다고하면서 여보 아무래도 그 바위와 무슨 관계가 있나 봐요. 우리 바위도 정성껏 보살피고 아껴요! 하고 약속했다. 드디어 부인이 진통을 느끼고 아기가 태어 날려고 할 때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더니 그 바위에서 커다란 용이 하늘로 올라 가는데 그 부부의 집 주위를 빙빙 돌고 가는 것이었다. 그때 부인은 옥동자를 낳았다. 아기가 점점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훗날 그 바위에서 용꿈을 꾸고 옥동자를 낳았다고 이 남편의 이름이 용석이고 용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여 용바위라고 불리운다. 그러나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부부가 살던 집은 간데없고 바위도 깎이고 깎여서 커다랄던 바위가 아담한 바위로 바뀌었고 산천도 변하여 산에 있었던 바위가 길옆에 놓여 그곳을 지날때마다 그 부부의 정성에 대한 사랑의 눈길을 보내며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여 조금 으쓱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96] 자 라 바 위

도고면 와산리 자라실에 자라바위는 형태가 둥글고 자라모양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다. 옛날 하늘나라에 옥황상제의 딸인 여옥이란 처녀와 길재라는 총각이 있었다. 둘은 남모르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 사실을 안 옥황상제는 노하여 둘을 하늘나라에서 추방했다. 그리고 별로써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여자는 자라가 되어서 인간 세상에 가되 낮에는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하고 남자에게는 말이 되어서 또한 장군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변신할 수 있으나 밤에는 다시 자라의 모습으로 변한다. 만약 밤에 자라로 된 너의 모습을 인간에게 보이면 그 자리에서 돌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3년동안 너의 모습을 인간에

게 들키지 않는다면 길재와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늘나라에 와서 살 수 있다. " 고 옥황상제는 말했다. 인간에 내려와 여옥이는 자라가 되고 길재는 말이 되었다. 길재는 씩씩하게 잘 달리는 훌륭한 영마였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장수와 만나게 되었다. 처녀의 모습은 단번에 장수의 눈에 들었다. 둘은 사랑했다. 말 역시 장군이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장군이 출전하는 전쟁마다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되었다. 여옥과 길재의 역할의 덕이었다. 나라는 온통 장군의 말과 아내에 관한 소문으로 자자했다. 어느덧 장군의 승리로써 모든 전쟁이 끝나자 장수는 집에서 여옥이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사정도 모르는 장수는 청혼을 했다.

그렇지만 아직 3년이란 세월이 안됐기 때문에 밤에는 자라로 되어야 하는 여옥에게는 당황할 일이었다. 밤마다 여옥은 뒷산으로가서 자신의 몸을 숨겼다. 이를 수상히 여긴 장수가 그의 뒤를 쫓아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영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자라하나가 기어가고 있는게 아닌가. 장군은 너무도놀라서 그 자리에 멈추고 말했다. 그 순간 자라는 눈물을 흘리며 돌로 변한 것이다. 여옥이는 다시 하늘나라로 갈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을 본 길재는 슬펐다. 자기도 다시는 하늘나라에갈 수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말이 된 길재는 밤새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여옥이 돌로 된 것을 슬퍼했다. 장군 또한 슬퍼했다. 옥황상제는 여옥과 길재를 불쌍히 여겼지만 다시 하늘나라로 오게 하지 않았다. 장군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고 한탄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로인해 그 마을을 자리실이라 하며 자라실에 있는 이 자라바위에는 여옥이를 찾기 위해 마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발굽에 밟힌 그 자국이 자태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내용이 담긴 서글픈 전설이 아닐 수 없다.

[97] 묘 지 송

아산군 도고면 금산리에 있는 공동묘지의 근처 구멍이 나 있는 바로 옆에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어느날 어느 청년이 자정이 넘어서 그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조금 가다보니 무슨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흰 옷을 입고 머리는 늘어뜨리고 있는 한 여인이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다. 그 청년은 겁에 질려 도망가려 했지만 발은 잘 떨어지지도 않고 가도 가도 여인은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청년은 결국 그 여인에게 의해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후에도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귀신에게 혼을 빼앗겨 현장에 죽지 않더라도 결국 집에 와서라도 죽고마는 것이다. 때문에 그 근처 마을은 한두집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폐허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마지막 남은 이 집도 이곳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도 이상하게 여긴 그 집의 한 노인이 이제 살만큼 살았고 이제 자신이 할 일은 자기의 후손들이 문힐 고향을 지키며 잘 살수 있게 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 노인은 그 귀신을 잡기로 결심하고 깜깜한 밤에 가족도 모르게 낫을 들고 혼자 처녀 귀신이 나온다는 소나무 밑으로 갔다. 그곳은 낮에도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길이었다. 그 소나무 밑으로 다가가면서 소나무를 올라다 보아도 멀리 쳐다 보아도 귀신은 보이지 않았다. 소나무 밑을 한참 지나서 뒤를 돌아다 보니 이게 웬일인가! 전하는 말 그대로 흰 옷 입은 귀신이 나타난 것이다. 금방 귀신이 자신을 덮어 누르는 것 같았다. 도망가려 해보아도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다. 순간 정신을 가다듬었다. 내가 이럴때가 아니가. 저 귀신을 잡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저 귀신 때문에 죽어갔고 또 내 마을을 떠나지 않았던가 각오가 되어 있는 지금은 귀신이 덤빈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노인은 낫을 쥔채 귀신을 향해 다가갔다. 귀신은 소나무에 기대 있었다. 노인은 온 힘을 다해 낫으로 내리쳤다. 그리고 낫으로 찍어 올렸다. 그러나 이에 어찌된 일인가? 귀신으로만 흰 물체는 귀신이 아니다. 찢어진 헝겊 조각이었다. 밤에 무서움을 쫓겨 그곳을 달려가던 사람이 웅이에 옷이 찢겨 걸쳐 있는 것도 모르고 그에 놀라 까물치고 죽고 한 것이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는데 한낱 헝겊조각에 청년들이 죽어가다니! 웃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후 이 마을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하나 둘 모여 들었으며 귀신 아닌 헝겊을 잡은 노인은 그의 유언에 따라 큰 소나무 근처에 모셨다. 지금은 그노인의 묘도 귀신나무도 찾을 길이 없으나 노인들의 뒤를 따른 무덤들이 이곳을 차지하여 공동 묘지로 변했으며 이 마을이 살기좋은 곳이 된 것도 이곳을 지켜주는 수많은 우리 선조의 은덕이 아닐는지?

[98] 처녀 바위

도고면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만큼의 넓은 농토에 물을 공급해주는 큰 저수지가 있다. 충남 아산군 도고면의 석당리와 신유리를 양쪽에 그리고 앞에는 시전리를 끼고 위치해 있다. 이 저수지는 옛날 일제시대 교만하고 양만적인 일본인들이 만들었다고 한다. 그들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자기들의 손아귀에 들어온 줄 알고 이 저수지를 설치한 것이다. 야만적인 일본인들은 우리민족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농민들이 지어 높은 종작물을 착취해가길 위해 이 거대한 저수지를 설치한 것이다. 지금은 굉장한 중요한 농토의 젖줄기의 하나가 되었지만 그런데 신유리쪽인 남쪽은 저수지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 위험 지구는 별로 없지만 석당리쪽인 북쪽은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경사가 급하지만 석당리 아이들은 학교에 갈 때 그곳을 지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경계가 심하다. 이 위험지구인 독을 따라 계속가면 최고로 위험한 곳에 이르게 된다. 그곳에 물과 땅이 맞닿는 부분에 바위가 있다. 바위의 이름은 처녀바위, 이 바위 밑에는 빨아들이기도 할 듯이 저수지의 물이 무시무시한 느낌이 든다. 마치 살인현장과 같이 이것으로 그 밑의 물이 얼마나 깊은지를 과히 어렵지 않게 짐작하게 될 것이다. 이 바위에서 예로부터 자살하는 일이 많았다. 그것도 처녀들이 왜 그런지는 몰라도 처녀들이 자주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지날때면 언제나 소름이 끼치게 됐고 그곳을 지나가기를 꺼린다. 이 바위는 저수지 공사를 할 때 이곳에 무덤이 있었는데 왜놈들이 그대로 파헤쳐 저수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원혼이 이 바위에 서려 일어나는 일이라고 전한다.

[99] 하 지 량 이

우리 마을의 전설이라 할까 우리마을의 전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우리 마을의 이름이 붙어진 하나의 내용이라 해야 할 것 같다. 아들의 형제가 옆집의 터에 집을 지어 살곤하던 때였기 때문에 한 동네에 같은 본과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오래전에 우리 마을이 생기고 난 후에 세월이 흘러 그냥 특이한 현상으로 이름이 붙어지던 그때 우리 동네에 "좌랑"이란 벼슬을 했던 하씨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 삶의 인격으로 보나 생김새를 보나 아무튼 말하지만 그 사람은 웅고집을 가지고 얼굴도 괴악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어떤 하루는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다니다가 소문도 모르고 그 좌랑의 대문에 들어섰다. 그 하인은 마음씨가 고와서 좌랑 모르게 살짝 쌀을 주었다 한다. 그런데 좌랑은 심심해서 나왔던 차에 그것을 보고 하인을 데리고 가 주지스님에게 준 쌀을 그만큼 빼앗고 내쫓았다. 그래서 그 좌랑은 웅고집이라면 통하고 구두쇠라면 통해서 다른 마을까지 그 소문이 퍼져 하좌랑하면 우리 마을을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하좌랑 하좌랑 하다가 변하여 하지랑이 되었다고 한다. 사람이라면 살아감에 있어서 남에게 조금씩 은혜를 베풀줄 알아야 할 것 같다. 하좌랑처럼 한평생을 구두쇠 웅고집으로 살아간다는 것, 남에게 손짓을 받아가면서 사다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다. 모든 사람은 죽음앞에 가면 약하다는데 이 좌랑은 죽음앞에까지 웅고집을 버리지 못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100] 황 소 고 개

도고면 기곡리에 황소고개가 있다. 옛날 어느 조그만 마을에 한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다. 총각은 인물도 뛰어나고 문장에도 특출하였다. 그런데 이 아들은 3대가 함께사는 과부집의 독자였으므로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을 하루빨리 혼인시켜 대를 이을 자손을 얻은 안아오는 것이 소원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3대째 내려오는 과부한테 딸을 주었다가 또 다시 그 딸마저 과부가 되면 어쩌느냐고 딸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다가 시어머니 될 사람이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지 그 집으로 딸을 주었다가는 시집살이에도 못견딜거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또한 비록 3대째 내려오는 과부집안 이기는 하난 며느리만은 좀더 좋은 집안에서 데려왔으면 하는 생각했다. 이처럼 아들을 혼인시키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 때문에 그 어머니는 무척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이 장가를 들게 할 수 있을까? 그 당시 어머니의 위치

서는 마음씨를 좀더 고착호 며느리를 귀여워 해주는 시어머니가 되는 수밖에는 없어쌌. 이렇게 좀 과부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자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져 갔다. 그리하여 드디어는 이웃마을에 사는 집안도 괜찮고 마음씨도 곱고 며느리 감으로는 손색이 없는 그런 처녀와 결혼하기로 했다. 그 집에서도 비록 독자이기는 하나 그의 사람됨을 알고 딸을 내주기로 했던 것이다. 하루, 이들 세월은 흘러 결혼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물론 집안의 잔치 때문에 바쁜 것은 말할 나위도없고 온 마을이 들떠 있었다. 것처럼 힘들었던 결혼이기 때문에 모두가 더욱더 술렁대는 것 같았다. 식을 올리고 나서 신부가 신랑집으로 가야 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가마꾼들은 자연히 비 때문에 늦어지게 되었다. 신랑집에서는 저녁 때가 다 되고해도 신부가 오지를 아니하자 무척 걱정을 하였다. 땅거미가 내렸을 무렵에는 신부를 태운 가마꾼과 짐을 싣고 오는 이 신부 일행들밖에는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고 있었다. 신랑집으로 향하는 길에 큰 고개가 있었다. 이제는 주위에 어둠이 깔려 있고 정말 으스스한 분위기였다. 그 고개를 오르는데 앞에서 황소에 짐을 싣고가던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지고 말았다. 그 앞에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눈을 부릅뜨고 으르렁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큰 호랑이였던 것이다. 이를 본 황소는 화가 나서 그 호랑이에게 달려 들었다. 황소는 신부일행을 구하려는 마음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그 호랑이와 싸웠다. 이때 신부일행은 걸음을 재촉하여 허둥지둥 신랑집에 도착하였다. 신부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신랑집에서는 호랑이가 나타나서 앞을 가로막아 가신히 도망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도와 주셨다고 하며 무사히 도착한 것을 반겨 주었다. 그 이튿날 동네의 장정들이 그 고개를 가보니 황소와 호랑이가 함께 죽어 있었다. 황소는 끝내 목숨을 걸고 호랑이에 맞서서 싸우다가 죽고 만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황소라고 하여 그 뒤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 고개를 황소고개라 부른다고 한다. 그리고 밤이면 그곳에서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 한다.